반도체 호황에 韓 성장률 3.2% 전망… 내수 회복은 '제한적'

골드만삭스, 韓 거시경제 진단
삼전닉스 등 일부 기업에 수익 집중
민간소비 증가율 2% 수준 예상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시장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물량이 늘어나면 소재와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이 바로 혜택을 보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삼성전자가 업체들에 돈을 더 주지는 않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호황이 곧바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하더라도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이익은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가계 소비로 퍼지는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권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종로구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열린 '2027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미디어 브리핑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2%로 상향했다.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3.5% 성장도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수준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소비로 퍼지는 효과는 제한적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에도 내년까지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가 반도체 수요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권 이코노미스트는 "2028년 문제이지 2027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가 내수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AI 관련 제품의 생산량이 늘면서 소재·부품·장비 업체도 혜택을 받지만, 한국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임금과 배당소득 증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가계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주가 하락과 고령화, 이자 부담 때문에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증시 조정과 관련해 "주가가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의 역자산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최종금리 3.5% 넘을 이유 없어"… 연말 환율 1280원 전망

소비 회복이 약한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도 제한될 것으로 봤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내수 과열보다 유가와 환율 등 수입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다. 내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고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5%에 머문다면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3.5%를 넘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280원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약 20%에 달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임금과 배당금, 법인세를 지급하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원화 수요가 내년 GDP의 10% 이상으로, 올해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회복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데이터센터 규제와 신용시장 불안, AI 수요 약화로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은 경계했다. 비반도체 제조업에는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른 경쟁도 부담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와 수출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너무나 크고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흩어진 AI 하나로… 코스콤, AX 체계 구축

전사 AX 4대 전략·8대 과제 공유
사내 AI 해커톤 열고 아이디어 발굴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Koscom Tech Summit 2026'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스콤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 온 코스콤이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업무 경쟁력으로 키우고 있다. 개별 부서에서 시도하던 AI 활용을 전사 차원의 과제로 묶고, 개발·운영부터 보안관제와 지식관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코스콤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내 기술 행사 '코스콤 테크 서밋(Koscom Tech Summit) 2026'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전사 AX 추진단의 활동 현황과 최근 1년간의 AI 전환(AX) 적용 사례를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본사 15층 강당의 발표 세션과 1층 로비의 전시·체험 부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부서별로 진행하던 AI 활용을 전사 차원의 추진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AX 주관 조직뿐 아니라 정보보호부 등 현업 부서와 사내 해커톤 수상팀도 발표자로 참여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혜원 코스콤 AX·R&D본부장은 기조연설 'KOSCOM AX, 한 장의 지도'에서 전사 AX 추진체계와 4대 전략·8대 과제를 공개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가장 큰 일은 부서마다 따로 하던 AI를 한 장의 지도 위에 모은 것"이라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AI 활용 경험을 전사 차원의 로드맵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콤은 지난 1년간 운영·개발 업무에 AI를 적용해 왔다. 테스트 자동화와 C언어 코드의 자바(Java) 전환에 AI를 활용하고, 사내 지식화 서비스 'X.On'도 준비하고 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전용 구역과 사내 AI 모델 'X-pro'를 갖췄으며 보안관제 업무에도 AI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업무 개선 방안을 찾는 시도도 이어졌다. 코스콤은 사내 코딩 해커톤 'ㅋㅋ톤'을 열고 '내 업무의 불편함을 AI로 해결'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았다. 총 36개 팀 68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팀 19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상인 'C2X' 팀을 포함해 모두 4개 팀이 수상했다.

대상작은 코드 변경이 다른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AI로 분석해 장애 예방을 돕는 도구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산출물도 자동으로 작성해 개발자의 반복 업무를 줄이는 기능을 담았다. 코스콤은 해당 수상작을 사내 AI 환경에서 검증하고 보안 검토를 거쳐 관련 부서 업무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심화 세션도 진행됐다. 'AI Adoption'과 'AI Engineering' 두 트랙으로 나눠 사내 지식화와 보안관제 분야의 AI 활용, 사내 AI 모델 운영, 원장 코드 전환 사례 등을 다뤘다.

전시·체험 부스에서는 AI를 구동하는 GPU와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구성 등 인프라를 소개했다. 사내 문서와 회의 내용을 지식으로 축적해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과정과 AI 에이전트 기반 코딩(Agentic Coding)도 선보였다. AI 모델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업무에 연결하기 위한 기반과 활용 방안을 함께 공유한 것이다. 코스콤은 올해 마련한 전사 AX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AI의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작년 첫 행사가 '이런 AI가 있으니 한번 써 보자'였다면, 올해는 '직접 써 보니 이렇게 달라졌다'를 나누는 자리"라며 "올해가 AI를 쓸 바탕을 깐 해였다면, 내년은 AI가 각자의 업무 안으로 들어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거래소 지분 20%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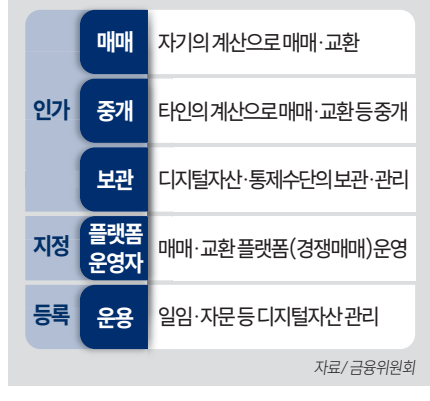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판매도 허용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초기 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판매(ICO)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중개·보관·운용업과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거래소)로 세분화하고 업무 특성에 따른 인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되 핀테크·기술기업도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발행업자는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준비자산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발행잔액 1조원 이상인 스테이블코인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식 소유 한도는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되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34%까지 허용한다. 기존 거래소에는 최대 6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ICO도 허용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전산 안전성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거래소, 불법 공매도 합동점검

이상징후 포착시 즉시 감리·조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급락 종목과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집중 점검한다. 특정 계좌에 거래가 몰리거나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공매도 계좌의 주문·체결 내역을 추적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과 거래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공매도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22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감시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TF는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과 조사1국 시장감시팀, 거래소 시장감시부와 공매도특별감리부가 참여한다. 양 기관은 23일 합동회의를 열고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거래소는 실시간 공매도 감시를 통해 거래 급증이나 특정 계좌의 거래 집중 등 이상징후를 살피고,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양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의심 거래에 공동 대응하고,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로 신속하게 넘길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주가가 급락했거나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이다. 주요 시장 이벤트와 종목별·계좌별 매매 양상을 함께 분석해 불법공매도 혐의는 물론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여부도 살핀다.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매도 계좌는 주문·체결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이거래를 지속 추적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